

'위기설' 속 돌파구 찾는 사회과학출판

이념적 편향성 탈피하는 지구책 마련... 자생적 노력 불구 전도 불투명

'영광의 시대'였던 80년대와 달리 90년대에 들어 사회과학 출판계가 '위기의 시대'에 봉착하게 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유포되는 것과 더불어 이를 타개하기 위한 출판사의 '각개전투'가 가시화되고 있어 관련자들의 주목을 끌고 있다.

사회과학 출판계의 순항을 방해하는 이같은 '황사현상'은 이미 예견되고 있었다는 것이 출판전문가 대부분의 견해. 지난 시대에 사회과학 출판계가 보여준 괄목할 만한 성장요인을 금기의 영역에 과감히 도전한 '예외적인' 역량에서 찾고 있는 이들은, 이런 사실 자체가 역설적이게도 불행했던 80년대의 한 단면을 드러내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고도의 지적 수련을 전제로 하는 사회과학도서는 안정된 사회체제에서 결코 시장성을 확보할 수 없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지만 "자유규제는 규제대상의 책을 과소비하게 하는 결실만을 만들었다"(이중환·서울신문 논설위원)는 것이다.

김병익씨(문학평론가)는 이런 견해의 연장선에서 80년대가 '사회과학의 시대'였던 까닭을 "그동안 금기되었던 갖가지 도서들이 그 위험수위에 도전하면서 끊임없이 새로운 이념과 주제로, 그리고 저서와 번역으로, 다양한 지하유통구조로 독자들을 유인할 수 있었다는 점, 그리고 '금서'라는 프리미엄이 덧붙여졌다는 점, 민주화와 새로운 가치체계에 대한 독자들의 호기심이 현실문제와 관련하여 고조된 점"에서 찾을 수 있다며 현재의 상태가 지속된다면 사회과학 출판계가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 전망하면서 이는 "앞으로는 새롭게 인식되어온 이념들이 더 이상 새롭게 느껴지지 않을 것이며 금서 프리미엄도 더 가능하지 않을 것이고 특히 가장 중요한 독자층인 중산층이 급진적이고 전투적인 이론들에 염증을 가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시장축소 요인에 대한 객관적 검토

출판전문가들의 공통된 비관적인 전망에 대해 한동학씨(백산서당 상무)는 일단 수긍하는 입장이다. 사회과학 출판시장의 외연을 가능케 하는 객관적인 통계자료는 없지만 "현장감각에 비추어 볼 때 시장규모가 30% 정도 축소된 것이 사실"이라며, 그러나 "이런 현상은 사회과학 출판계 특유의 기동성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과도기적 현상이다"고 낙관적인

견해를 피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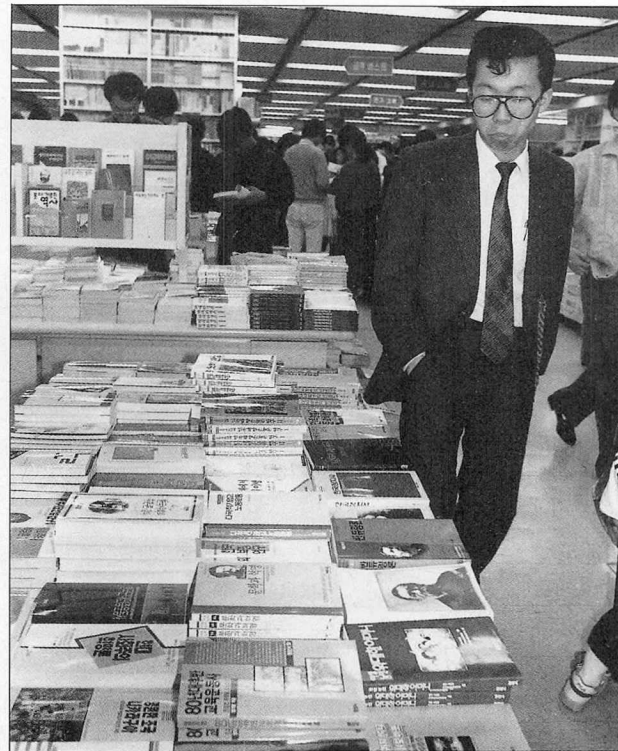
심성보씨(돌베개 기획부장)는 무조건적인 시장축소 견해를 비판하는 시각이다. 그의 견해에 따르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시장축소의 요인을 사회과학도서 전반의 현상으로 호도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작금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팔리는 책'과 '잘 팔리고 있는 책'으로 나누어 살펴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근 서점가에서 잘 팔리지 않는 책은 주로 80년대 초반 번역출간되었던 일본사회과학도서"라는 것이 심성보씨의 지적. 정부당국의 사상통제정책으로 본격적인 마르크스주의적 소개할 수 없었던 시절에 '대타' 노릇을 했던 책들이 이념의 지평이 크게 확대되면서 '퇴역'하고 있다는 것. 특히, 운동권에서 제기된 한시적인 문제의식에 답하기 위해 출간되었던 번역서들은 그 날림공사적인 성격 때문에 독자들로부터 '철거' 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반해 꾸준한 신장력을 보여주고 있는 책은 사회주의권에서 간행된 철학서와 민중사관적 입장에서 씌어진 역사개설류. 더욱이 '전위세력'을 의식하고 만들었던 노동운동관련 도서들은 노동조합 결성이 활발해지면서 묵은 먼지를 털고 서점가에 '재배치'되고 있다. "이즈음의 시장규모 축소는 사회과학도서 출판이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되었다기보다, 급변하는 정세 속에 다양하게 자구되는 독자들의 지적 욕구를 사회과학 출판계가 능동적으로 채워주지 못하고 있는 것에 기인하고 있다"는 것이 심성보씨의 결론이다.

이상의 요인을 대체적으로 수렴하면서 정덕채씨(한울협 사무국장)는 사회과학 출판계에 자행되는 정부의 음성적인 출판탄압도 시장축소의 주요요인의 하나로 손꼽고 있다. 정덕채씨에 따르면 4월5일 현재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된 출판관계자가 16명에 이르고 있고, 사실상 팔릴 만한 책은 여전히 '금서'로 묶여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당국이 "독자들을 탄압함으로써" 출판활동을 위축시킨다는 견해는 이색적이다. "찍어 두었던" 시국관련 사명을 구속할 적절한 범법행위가 발견되지 않을 때 '이적 표현물 소지혐의'로 구속하고 있어 잠재적인 구매욕구를 억압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사회과학 출판계가 누리고 있던 '호황의 맛'을 내리게 한 '암초'는 6·29 이후 우리 사회의 전향적인 발전에서 찾을 수 있다는



'영광의 시대'였던 80년대와 달리 사회과학출판계는 90년대에 들어 출판시장이 크게 위축되는 위기에 처해 있다. 사진은 교보 문고 사회과학코너.

것이 관련자들의 衆論. 금서로 지목된 대부분의 책들이 해금되면서 '금단의 반사이익'이 현격하게 줄어 들었고, 출판사 등록이 자유화되면서 신진출판사들이 대거 등장, 시장규모가 상대적으로 잠식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사회과학 출판사들이 그간의 '구멍가게'식 경영을 탈피하고 '백화점'식으로 출판영역을 다각화함으로써 대응책을 마련하기 시작한 것은 2~3년전부터.

품목다변화로 변신 꾀하기도

사회과학 출판사들의 변신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현상은 문예물 출판이다. 80년대 초반 '시의 시대'가 꽃핀 이후, 문학시장의 규모가 크게 확장되면서 의외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 문예물 출판은 상업성과 함께 민중성을 견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과학출판사들이 쉽게 참여하고 있다.

민중문학적 입장에서 문예물을 출판하고 있는 출판사는 이 영역의 '터줏대감'인 창작과 비평사를 비롯, '폴빛문화시선'과 '폴빛소설선'을 펴내는 폴빛출판사, 「민중시선」을 펴내는 청사 등이 이미 사회과학 출판사 이미지보다는 문예물 출판사로 '성형수술'한 격. 이밖에도 「전태일문학상 수상작」을 내는 세계, 「강철군화」 등 번역작품을 선보인 한울, 「참시선」을 기획한 백산서당 등이 '후발업체'로 참가하

고 있다.

외국서점가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현상이 베스트셀러 목록에 사회과학도서가 끼는 일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 그러나 사회과학의 대중화에 성공적인 모델로 지목되는 동녘은 「나의 라임오렌지나무」와 「철학에세이」를 각각 그 변연에 올려 놓는 神話를 창출, 이후 사회과학 출판계 변신의 방향을 가리키는 이정표가 되고 있다.

「나의 라임오렌지나무」로는 청소년층부터 아동에 이르기까지 독서시장의 연령하향선을 내려왔고, 「철학에세이」는 청소년층에서 일반인에 이르기까지 사회과학도서 독자의 상향선을 크게 끌어 올렸다.

이같은 동녘출판사의 성공케이스에 힘입어 사회과학 출판계가 눈길을 돌리고 있는 분야는 청소년교양서적.

진보적인 철학서를 내는 중원문화사가 이미 발빠르게 접근했고 한겨레가 올해 초 「하느님 듣고 계세요? 저 마가렛이예요」 「종착역에서는 누구나 내리는 법이다」 등을 내면서 본격적인 시장개척에 나섰다.

북한원전을 주로 퍼냈던 이성과학실은 자연과학도서로 청소년층을 공략하고 있어 이채롭다. 최근 서점가를 풍미하고 있는 「알기 쉬운...」 과학문고 시리즈를 내는 이성과학실은 다른 출판사들의 기획과는 달리 사회주의권의

우리사회의 전향적인 발전이

사회과학출판계에 '황사현상'을

일으키고 있다. 금서라는 프리미엄에

힘입어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던

출판계가 '호황의 닻'을 내리게 된 것.

이에 사회과학출판사들이 그간의

구멍가게식 경영을 탈피하고

백화점식으로 출판영역을 다각화하는 등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그 성공가능성은 불투명하다는 것이

출판전문가들의 진단이다.

과학도서를 저본으로 삼고 있는 것이 특색이다.

청소년대상의 교양서적은 특히, 전교조사태와 맞물려 교육관련 도서를 못물 터지듯 출간시켰지만 입시제도라는 현실적인 장벽을 얼마나 뛰어넘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실정이다.

팽배한 위기감 속에서 돌파구를 찾고자 하는 조급함이 사회과학출판사의 기존 이미지를 완전히 '배신'하는 기획마저 눈에 띄게 늘어나면서, 사회과학출판계에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중원문화사의 경우 '녹정기'를 비롯 무렵지를 번역하고 있고, 지양사는 '일본법 강의'에 이어 영어학습참고서를 간행했다. 한울의 경우도 「표준중국어 문법」을 내놓음으로써 외국어교재시장을 개척하고 있다. 이들 책은 다른 기획물과는 달리 '상업성'만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경영진과 편집진의 마찰을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백산서당이 「공산당선언」 등 주요한 마르크스 저작의 영한대역본을 문고판으로 기획, 서점가에 내놓았다.

사회과학출판계가 가장 '눈독'을 들이고 집중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 부분은 대학강단에서 널리 쓰이기 시작한 '대체교재' 개발. 진보적인 소장학자들이 강단으로 진출하면서 그 필요성이 더욱 높아진 '대체교재 개발'의 특색은 인문사회과학연구소가 출판사로부터 프로젝트를 받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경우로 백산서당과 한국사회연구소의 '밀월

관계'를 지적할 수 있는데, 출판사가 연구소에 연구비를 지출하고 연구단체는 연구성과의 출판권, 재정지원을 한 출판사가 독점하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한울의 경우는 한국역사연구소와 협력, 「한국사 강의」를 출간해 상업적으로 크게 성공했고, 미래사는 산업사회연구소에 프로젝트로 「새로운 사회학 강의」를 의뢰, 최근의 '대체교재' 바람을 일으키는 주역이 되고 있다.

'상업성'에 눈둘리며 그간의 공신력에 흠집

사회과학출판계의 이같은 '화려한 변신'에 대해 심성보씨는 "과거의 이런 부분만 고집하겠다는 사회과학출판계의 폐쇄성이 극복되면서 이런 부분만은 안된다. 탄력적인 기획을 갖게 되었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지적한다.

그러나 사회과학출판사의 변신이 출판매체를 통한 '운동'보다 '상업성'에 무게중심이 옮겨지면서 그간 사회과학출판계가 자생적으로 쌓아 올린 공신력이 무너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욱이, '상품의 다변화'라는 점에서 당연한 추세로 보이는 이런 변신이 계획적이거나 집중적인 기획개발이 아닐 때에는 대중추수적인 상업주의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는 비판도 아울러 제기되고 있다.

이효균씨(동녘기획부장)는 사회과학출판계의 영세성이 참신한 기획안을 바탕으로 한 과감한 투자를 가로막고 있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으며 "연구자와 출판사, 독자들의 관계가 밀접하게 연결되면서 인문사회과학의 인식들이 대중화되는 계기"를 찾아야 한다고 말하면서 "특히, 일부 출판사가 보이는 지나친 상업주의 추구는 사회과학출판계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전혀 기여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김병익씨는 사회과학출판사가 기존의 전통을 유지하면서 활로를 개척하는 방법으로 "보다 세련된 이론과 도서를 발간하는 일, 보다 전문화된 집중된 주제를 개발하는 일, 보다 선명하고 실제적인 기획을 만들어 내는 일" 등이라고 말하면서도 "현재 사회과학 도서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속에 끼어들 여지가 어느 만큼이나 될 지 염려스럽다"고 지적, 90년대 사회과학출판계의 전도가 결코 밝지만은 않다는 것을 암시했다.

—이권우 기자

저작구상

난치병 치료의 한의학적 접근

「갑상선질환의 한방요법」

尹永錫

대구대 교수·韓醫學

한의학적 진단과 치료는

어떤 '병명'이 아닌 생체 전체가

기준이 된다. 병적인 상태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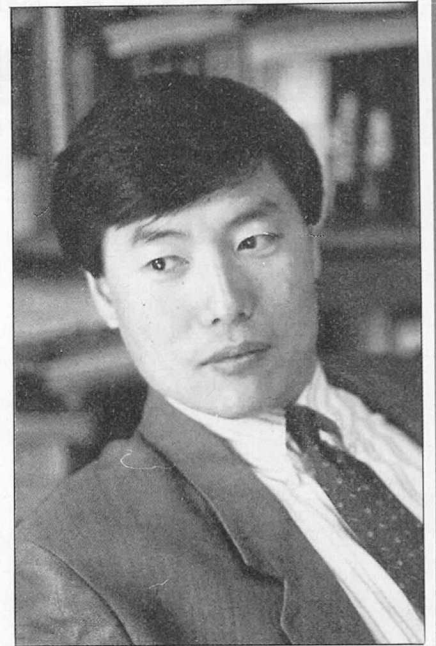
환자의 체질에 맞게 균형을 이루도록

변화시키는 데 주력한다.

나는 처음에는 책을 마음만 먹으면 아무나 낼 수 있는 것인 줄 알았다. 그러나 그것은 어렵도 없는 것이라는 것을 글을 쓰기 시작한 즉시 깨달았다. 더구나 일반적인 내용이 아닌 갑상선병이라는 지엽적인 부분에 대하여 책을 만들어 보겠다는 것 자체가 만용이었던 것 같다. 책이 거의 마무리되어가는 요즘에는 제목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걱정거리이다. 「한방의 내분비치료학」, 「갑상선 질환의 한방요법」, 「갑상선 질환, 이렇게 고쳐라」 등등...

원래 이 책은 한의사를 위해 쓰려고 시작하였다. 다행히 나는 이조 정조때부터 한의를 가업으로 하는 집안의 장손으로 태어났다. 평안북도에서 5대째 한의를 하던 할아버지는 월남하여서 한의사가 된 나의 아버지와 함께 주로 난치병에 대한 치료에 주력하였다. 그러나 1970년대에 이르러 영류증(양방에서의 갑상선 질환)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치료하다가 어찌하다 보니 갑상선 질환의 전문이 되어버렸다.

원래 한방은 같은 병명의 질환이라도 사람의 체질과 병증의 정도에 따라 그 치료법을 달리한다. 그러므로 갑상선질환도 의사에 따라 치료법이 다른데, 이에 대해 동료한의사들과 토론하던 중 그동안의 경험을 책으로 써보라는 권유를 받았다. 1987년 봄부터 자료와 그동안의 처방전을 모아 300쪽 짜리 딱 한의사만 읽을 것이 아니라 치료의 기본이 되는 섭생 및 자가치료법도 환자에게 알려주면 더욱 좋겠다고 생각되어서 어려운 한방용어는 쉽게 뜯어고치고 한문은 가급적이면 쓰지 않았다. 그러다보니 기본적인 한방지식이 없이는 이 책 자체를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이 간단한 한방상식도 책의 첫머리에 끼워 넣어보았다.

일반적으로 한의학적 진단과 치료에 있어서는 갑상선병처럼 병명이 아닌 생체전체가 기준이 된다. 즉 비정상적인 생리상태와 병적인 현상을 동양철학적인 관찰로써 환자의 체질과 오장육부의 차고 뜨겁고 강하고 약한 것을 파악하여 상호간의 균형을 이루게 하는 데에 치료의 목표를 두는 것이다.

이에 대한 것을 쉽고 간략하게 쓰려고 하다보니 가장 중요한 한의학적 사고방식에는 접근조차 못하고 이 책이 도리어 한의학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그릇된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하게 된다. 그러나 확실하게 이야기 할 수 있는 것은 한국사람이면 누구나 이 정도의 한방지식은 필히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 지난 3년간 항상 책을 써야 한다는 중압감으로 원고지 들여다보기가 지겨웠다. 그러나 절반은 사명감으로, 절반은 공부라 생각하고 지내온 30개월이었다. 오는 여름쯤 나올 이 책을 읽는 모든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 책이 비록 갑상선질환에 대한 치료법을 썼지만 이것이 한의학적 내분비치료학의 전부는 아니라는 점이다. 이 책에 나오는 치료법은 갑상선치료의 극히 일부인 것이다.

이 책을 끝내면 바로 다른 난치병의 치료법에 대해 써볼 생각이다. 책을 쓴다는 것이 조각난 천조각을 엮기설기 있는 작업이 되고 간간히 빈틈이 많이 보이겠지만 이러한 책을 전부 모으면 한의학에 있어서 우리 나름대로의 한국적 치료법을 세울수 있으리라 기대 때문이다.